

<2014.07.23.~2014.07.24.>

# 전북도민일보

2014년 07월 23일 (수)  
지역 08면

## 군산항만청,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실시

2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은 랍사르국제협약 연안습지로 등록된 고창·부안 줄포만 갯벌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랍사르 습지 등록 규모는 고창 40.6㎢, 부안 4.9㎢다.

2007년부터 해마다 실시중인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이 기초교육과 현장실습을 받은 후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및 갯벌생태·문화 등을 관찰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상시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실제로 ‘시민모니터링’은 전문가 모니터링에 비해 일상적 현장접근이 쉽고 물리적 훼손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데 효과가 커 주요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추세다.

군산=정준모 기자

80 X 85 mm



전국 > 전북

## 고창·부안줄포만 갯벌습지 모니터링 용역 추진

(군산=뉴스1) 김제수 기자 | 2014/07/22 17:26 송고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은 2010년 1월 람사르국제협약 연안습지로 등록된 고창(40.6km<sup>2</sup>)과 부안줄포만(4.9km<sup>2</sup>) 갯벌에 대해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민모니터링 용역사업을 이달 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습지보호지역 시민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이 기초교육과 현장실습을 받은 후 저서생물과 염생식물, 조류 및 갯벌생태·문화 등을 관찰 조사하는 사업으로 상시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모니터링은 전문가 모니터링에 비해 일상적 현장접근이 용이하고 물리적 훼손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데 효과적임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주민에 의한 모니터링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번 용역사업은 습지보호지역 인근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개발규제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믿음을 주는 경제신문

# 뉴스웨이

## 매일유업 상하목장,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

2014-07-23 18:30



매일유업 상하목장\_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이미지

‘유기농의 착한 혁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내 친환경 유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매일유업 상하목장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자사 제품에 사용한다.

해당 제품은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으로 8월부터 인증 로고를 부착해 판매한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는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정도로 청정한 고창의 자연 환경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 및 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어졌다.

고창군은 정부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 별도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지난 6월 11일 관내 23개 업체 31개 품목에 대해 협약식을 갖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브랜드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2008년 브랜드가 출시된 이래, 청정 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유기농 목장주들과 함께 고창의 자연 보전에 앞장서왔을 뿐 아니라 고창군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로 4회 째 진행하고 있는 ‘오가닉 서클 캠페인’이다. ‘오가닉 서클’이란 상하목장의 젖소와 초지, 퇴비가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자연의 순환을 뜻하는 것으로, 유기농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분뇨가 유기농 퇴비가 되고, 이 퇴비가 다시 목초의 자양분이 되는 유기적인 순환고리를 의미한다.

상하목장은 이를 알리고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매년 테마를 선정해 고창의 유기농 목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퇴비를 나누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나눔의 기쁨과 수확의 기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오가닉 테이블(My Organic Table)’로 정하고, 상하목장 유기농 퇴비와 함께 청정한 고창에서 수확한 건강한 공을 함께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상하목장 관계자는 “고창은 영양이 풍부한 황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적당한 비와 바람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등 낙농을 위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을 통해 상하목장 제품은 청정 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은 8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장, 가정 배달 채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Copyright NewsWa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홈 > 뉴스 > 뉴스 > 식음료

## 매일유업 상하목장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

2014년 07월 23일 (수) 09:23:16

이미주 기자 ✉ [limiju@cstimes.com](mailto:limiju@cstimes.com)



[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상하목장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자사 제품에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로고는 청정한 고창의 자연 환경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고창군은 정부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의 자격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지난달 11일 관내 23개, 업체 31개 품목에 대해 브랜드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내달부터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에 인증 로고를 부착해 판매할 예정이다.

매일유업 상하목장 관계자는 “고창은 영양이 풍부한 황토, 적당한 비와 바람 등 낙농을 위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 매일유업 상하목장,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

(입력) 2014-07-23 12:28:07 (수정) 2014-07-23 13:37:09 (DB:KR)

(태그) 매일유업(005990) 상하목장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오는 8월부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자사 제품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 제품에 부착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로고는 행정구역 전체(671.52km<sup>2</sup>)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정도로 청정한 고창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이 곳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 및 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어 진 것.

고창군은 정부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 별도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지난 6월 11일 관내 23개, 업체 31개 품목에 대해 협약식을 갖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임산물에 대한 브랜드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2008년 브랜드가 출시된 이래 유기농 목장주들과 함께 고창의 자연 보전에 앞장서왔으며, 고창군과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청정 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상하목장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이미지 (사진 = 매일유업 제공)

이와함께 상하목장은 유기농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분뇨가 유기농 퇴비가 되고, 이 퇴비가 다시 목초의 자양분이 되는 유기적인 자연의 순환 고리를 의미하는 '오가닉 서클'을 알리고 유기농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자 매년 테마를 선정, 고창의 유기농 목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퇴비를 나누는 '오가닉 서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상하목장 관계자는 "고창은 영양이 풍부한 황토를 비롯 해풍, 적당한 비와 바람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환이 이뤄지는 등 낙농을 위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이라며 "이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을 통해 상하목장 제품은 청정 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

의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하목장 제품 3종은 8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장, 가정 배달 채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프라임경제

[인쇄하기](#) [창닫기](#)[홈](#) > [뉴스](#) > [산업](#) > [생활](#)

### 매일유업,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

2014년 07월 23일 (수) 11:22:44

이윤형 기자 [lyh@newsprime.co.kr](mailto:lyh@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매일유업 상하목장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자사 제품에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로고 사용 제품은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으로 내달부터 인증 로고를 부착해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장, 가정배달 채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측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는 행정구역 전체(671.52㎢)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정도로 청정한 고창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 및 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2008년 브랜드가 출시된 이후 청정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유기농목장주들과 함께 고창의 자연 보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창군과 협력해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인쇄하기](#) [창닫기](#)

## 현대경제신문

[인쇄하기](#) [창닫기](#)
[홈](#) > [뉴스](#) > [유통](#)

## 매일유업,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요구르트 제품 등 3종에 8월부터 부착 판매

2014년 07월 23일 (수) 11:26:24

최보람 기자 [✉ p45@finomy.com](mailto:p45@finomy.com)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매일유업 상하목장은 내달부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자사 제품에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자연 환경 속에서 생산된 농·수·축 임산물 및 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만들어졌다.

매일유업은 2008년 브랜드가 출시된 이래 청정 지역 고창에서 유기농 목장주들과 함께 고창의 자연 보전에 앞장서왔을 뿐 아니라 고창군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lt;사진=매일유업 제공&gt;

매일유업 상하목장 관계자는 “이번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을 통해 상하목장 제품은 청정 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은 8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장, 가정배달 채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현대금융경제신문(<http://www.finom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프린트하기](#)

✕

## [기업] 매일유업 상하목장,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 사용

기사입력 2014.07.23 08:51 최종수정 2014.07.23 08:51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매일유업 상하목장이 다음 달부터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를 부착해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 로고는 행정구역 전체(67 1.52㎢)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정도로 청정한 고창의 자연 환경과 이 같은 환경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상하목장 관계자는 "고창은 낙농을 위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며 "청정 지역 고창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매일유업)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마크를 부착한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유기농 저지방 우유, 유기농 요구르트 플레인 3종은 8월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매장, 가정배달 채널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고창군은 정부의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등 별도로 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지난 6월11일 관내 23개 업체 31개 품목에 대해 협약식을 갖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브랜드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l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프린트하기](#)